

부사관후보생 246기 독서감상문 대회 입상자 명단

* 선발인원 : 최우수(1), 우수(3), 장려(5)

이름	소속/교번	수상명	독후감 제목	점수
임지우	부사관교육대대/ 2132	최우수	“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담다	86.4
좌윤영	1335	우수	하늘을 향해 묻든 수많은 소망들	85.4
함재율	1340	우수	제2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며	85.3
홍성의	1137	우수	독서감상문 제목	85.3
김지민	1115	장려	조국의 하늘을 날다	85.2
김동희	1214	장려	공군의 살아 있는 역사에 대하여	84.8
김민영	2116	장려	조국의 하늘은 앞으로도 푸를 것이다	84.8
우채원	1104	장려	김신 장군의 삶으로 나를 되돌아 보다	84.8
정지민	1333	장려	잠깐이지만 하늘을 날았다	84.1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담다.
소		속	부산관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이		름	임지우

‘참 기구하다’ 이 회고록을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다.

심사자

기록사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인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로 태어나, 일제의 감시와 탄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대기를 몸소 겪으시고 공군인으로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공군의 발전에 기여하신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님의 일생은 한 편의 영화와 같다. 어쩌면 그저 영화라고 표현하기엔 한 없이 부족한 기구하고 또 명예로운 일생을 사신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이하 김신 장관)님께 존경을 표한다.

김신 장관께서는 일본의 탄압에 의해 혼돈의 시기였던 일제강점기인 1922년 9월 21일 중국 상해에서 태어나셨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시고, 젖먹이 아들마저 뒤로 한 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아버님을 대신해 할머니께서 김신 장관을 오랜 시간 보살피 주었다.

김신 장관과 그의 형님이신 김인, 그리고 할머니는 일제의 끈질긴 감시와 회유로 인해 이름마저 개명하여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중국 방방 곳곳으로 피난다니며 어려운 삶을 이어나갔다. 인간은 대부분 안정된 삶에서 오는 행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암흑의 시대에 독립운동가 백범의 아들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 중국인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주워먹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유랑생활을 해야 했던 김신 장관과 그의 가족들의 고통과 외로운 싸움을 내가 감히 가늠할 수 있을까.

김신 장관께서 황해도 안악의 안신학교를 다니실 때 평양으로 다녀온 수학 여행에서 일본 항공대의 비행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로 마음 먹으셨다. 훗날 김신 장관께서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실 때 본인이 경험했듯이 아이들에게도 꿈을 심어주기 위해 '공군의 날' 행사를 진행하셨다. 김신 장관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오늘날 한국 공군과 항공산업분야의 높은 기술적 발전과 많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짐작해 본다.

심사자

김신 장관은 1944년 23세의 나이에 중국 윈난 성 쿤밍에 위치한 중국 공군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미 자원항공대 'Flying Tiger'로부터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인도 라호를 미 공군 기지에서 PT-13 기종을 몰며 초등 비행훈련을 했다. 그리고 김신 장관은 그 곳에서 조국의 광복을 맞이했다.

김신 장관은 인도에서 훈련을 마치고 독립된 조국으로 돌아가 아버님인 김구 선생을 모시려 했지만, 김구 선생은 하나 남은 아들이 나라에 힘이 되게끔 공부를 계속 하라고 하셨다, 그로 인해 김신 장관을 인도에서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김신 장관은 미국 랜돌프 기지에서 고급 비행훈련을 하며 훗날 6.25 전쟁에서 활약할 F-51 Mustang 전투기 조종법을 익혔다. 그렇게 김신 장관은 중국, 인도, 미국과 같이 세계 각지에서 항공 기술을 배운 유일무이한 한국인이 되었다.

필자 또한 항공 정비를 배우기 위해 고향인 충남 논산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로 상경해 2년간 공부를 했다. 단칸방 고시원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생활했고 정말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다. 필자에겐 서울 생활도 힘들기만 했는데 김신 장관께서 세계 각지에서 항공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읽으며 정말 대단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에 공감을 뛰어넘어 존경심이 들었다.

미국에서 고급 비행훈련을 마친 김신 장관은 중국 난징으로 돌아가 제대수속을 마친 뒤 독립된 대한민국에 13년 만에 귀국했다.

한국으로 귀국한 김신 장관은 남·북으로 통일된 정부 수립을 위해 아버지 김구 선생과 1948년 4월 19일 평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김신 장관과 김구 선생께서 목격한 건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져 버린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였다.

감신 장관의 아버지인 김구 선생은 안두희를 비롯한 김구 선생을 견제 하는 세력에 의해 암살당했고, 김신 장관도 정부와 공군에서 강한 견제와 감시를 받았다. 그로 인해 더 이상 공군에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지상 근무만 해야 했다. 하지만 1년 뒤인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F-51 Mustang 전투기를 몰 수 있었던 김신 장관은 미군의 전투기를 인수 받기 위해 이근석 대령 등과 같이 일본 이타즈케 미 공군 기지로 향했다.

미군의 F-51 Mustang 전투기를 한국으로 가져온 김신 장관은 육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미 공군이 성공하지 못한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하는 등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김신 장관은 같이 임무를 수행하던 조종사가 전사하면 그 부대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했다. 그렇기에 부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부대 지휘관인 김신 장관이 직접 전투기를 몰고 나가 목숨을 걸고 부대원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다. 혹자는 부대 지휘관이 직접 전투에 참여할 필요가 있냐고 김신 장관께 물었지만,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절박한 상황에서 김신 장관의 소신은 아직까지도 변함없다 한다. 김신 장관의 이러한 일화를 접하니 고등학생 때 본 “위 위 솔저스”라는 영화가 떠오른다. 영화의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인 미 육군 제7 기병연대의 할 무어 중령은 전투에 앞서 전투 지휘자인 자신이 가장 먼저 적진에 들어가고, 자신의 등 뒤에는 그 어떠한 부하도 남겨놓지 않을 것이라는 연설을 했고, 실제 전투에서 그의 약속을 지켰다. 그 장면을 보고 필자는 할 무어 중령과 같이 부하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솔선수범하는 군인이 되고자 마음먹었다.

김신 장관도 할 무어 중령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부하를 위하고, 희생적

인 군인이었다. 나는 단지 김신 장관의 이러한 일화를 이제
서야 접한 것에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

심사자
기록사항

한국 전쟁이 끝나고 김신 장관을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공군 참모
총장이 된 그는 공군에 남아있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없애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공군 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가 일어났고 이듬해인 1962년 9월 김신 장관은 주 중화민국 대사로 부임 했다.

중화민국의 장제스 총통과 각별한 사이였던 김신 장관은 양 국간의 우호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나날이 바쁜 생활을 보냈다. 그러한 와중
에도 김신 장관은 타이완에서 배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 학
교를 설립하기도 하고 힘든 유학 생활을 하고있는 학생들과 꾸준히 교류
하며 음식을 들고 찾아가는 등 많은 유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주었다.

필자의 누나는 갓 성인이 된 20세에 일본으로 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현
재는 일본에서 취직해 생활하고 있다. 그렇기에 김신 장관께서 유학생들과
교민들을 살뜰히 챙겨주셨던 사실이 타향살이를 하고있는 가족을 둔 사람
으로서 괜한 감사함이 들었다.

김신 장관은 8년 동안의 대사 임기를 마치고 1970년 한국으로 귀국했다.
한국으로 귀국한 김신 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교통부 장관으로 임
명 받았다.

교통부 장관이 된 그는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었고, 지하철
1호선 개통식과 같이 중대한 업무를 수행했다. 그 후 1976년 유정희 국회
의원이 되었고, 1986년 독립기념관 초대 이사장직을 거쳐, 2002년 백범 기
념관 관장을 역임하였다.

필자는 공군에 입대하면서 한가지 목표를 세웠다. 군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함이 나의 목표이다.

김신 장관의 회고록을 읽고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다. 굳이 말하자면 희열감에 가까운 감정이다. 김신 장관께서는 필자가 입대하면서 다짐한 목표, 더 나아가 삶에서 추구하는 이상향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사셨다. 그래서인가 김신 장관의 일생을 접하면서 알 수 없는 희열감으로 인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했고, 김신 장관께서 그 영화의 주인공인 영웅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영화 같은 삶을 사신 김신 장관의 고단함을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을 듯하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안위와 영화보다 민족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일평생을 바치셨다. 김구 선생과 같이 그의 아들 김신 장관께서도 군인, 외교관, 교통부 장관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부하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는데에 많은 힘을 쏟으셨다. 백범 김구 선생과 김신 장관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분들과 애국지사분들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인생을 한 편의 영화와 같다. 필자 또한 김신 장관처럼 공군인으로서, 항공인으로서 공군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안보에 힘쓰고 싶다. 나의 그릇의 크기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매 순간 명예심을 갖고, 내가 가진 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내 일생이 담긴 가치 있는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고자 한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하늘을 향해 물든 수많은 소망들
소 속	부사관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1335 / 후보생
이 름	좌윤영

들어가기 앞서 본 서적이 출판되기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이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기까지, 조국의 하늘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공군 선열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발로 딛고 서 있는 이 땅 아래 얼마나 많은 희생의 피와 이름 모를 선조들의 뼈가 있었는지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당연한 잘 포장된 도로를 걸으며, 그저 당연한 호사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김신 장관님의 회고록을 마치 한편의 주마등처럼 읽어나가며 한 사람의 인생이 어찌 이리 파라만장할수 있을까 감탄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한 절절한 고분분투는 책의 초입부터 느낄수 있었습니다. 김신 장관님은 1922년 9월 21일 중국 상하이에서 아버지 김구의 둘째 아들로 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김신 장관님은 유년기 시절부터 어머니를 여의면서 그리 평탄하지는 않은 삶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식을 고아원에 보내야겠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그 처절한 심정을 과연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하지만 감히 짐작하건데 지금의 김신 장관님을 있을 수 있게 한것은 할머니의 강인한 양육이었을것입니다. 독립운동으로인해 양육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아버지 김구의 부재로 사실상 모든 부모의 역할은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칠혹같은 어둠속에서 꺼질락말락한 등잔불처럼 김신 장관님의 할머니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단락을 읽던중 문득 필자의 옛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맞벌이 부모를 두었던 친구로 할머니의 손에서 길러진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할머니의 교육으로 항상 밝고 심성이 고왔던 친구로 기억합니다. 현재의 연고는 모르지만 아마 어딘가에서 똑같이 빛을 발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신 장관님을 포함해 여러 위인들을 보면 비슷한 공통점이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킬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훌륭한 위인들의 뒤에는 언제나 현명한 부모 또는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인거 같습니다. 이러한 힘들의

굴레 속에서도 김신 장관님은 작은 꿈하나를 키워나가시기

시작합니다. 김용대 선생의 도움으로 비행장을 견학하게 된 김신 장관님은 조종사가 되겠다는 어찌면, 공군 참모 총장으로 역임하시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몇 번이고 다시 곱씹으며 읽은 가장 애정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유인즉슨 필자도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군에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년기 시절 부모님 손을 잡고 성남에서 열린 에어쇼를 관람하러 간적이 있습니다. 위용을 뽐내며 상공을 무섭게 가로지르는 여러대의 전투기들과 항공기들은 저에게 하늘에 대한 동경과 항공기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저에게 누군가 다가와 항공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독 항공기와 공군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보였는지 저에게 공군 특기 패치를 하나 선물해주셨던 기억이납니다. 그 패치는 지금까지도 잘 간직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저에게도 김신 장관님의 김용대 선생처럼 저를 지금의 공군 간부후보생으로 이끌어준 은인이 있습니다. 아직도 군에 계시는지는 알수 없지만 언젠가 감사함을 전할수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 소망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공군인으로써 첫발을 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신 장관님의 이 회고록은 저에게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증진시켜주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막막함이 오더라도 캄캄한 길을 힘겹게 헤쳐가셨던 김신 장관님의 할머니처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김신 장관님처럼 조국의 하늘을 지킬것을 결연히 다짐합니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제 2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며
소		속	부산관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1340 / 후보생
이		름	함재율

저는 이 책을 3년 전 한번 읽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3년 전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하였을 때 한번, 현재 공군부사관후보생이 되어서 한번, 이 책을 다시 본 순간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신 장관님의 생신은 09월 21일이십니다. 제 생일 또한 09월 21일이고, 훈련병으로 입대하여서 이 책을 처음 읽은 날도 09월 21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연때문인지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책이고 잊지않고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책이었기에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김신 장관님은 독립운동가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아들로 태어나 선열분들이 분투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경험하셨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막막한 심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며 외로이 혼자 걸어야했던 소년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내신 김신 장관님 그래도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배님들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분들의 가족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따뜻한 가족애를 맘껏 누려보지 못하시고 늘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긴장과 불안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으시고 잠깐 볼 수 있었던 아버지 또한 애뜻한 기억도 없으셨습니다.

광복 후 아버지를 모신 것은 2년도 채 되지 않으셨고 지극정성으로 장관님을 돌봐주신 할머니와 형님도 잃어야했습니다. 광복 후에도 늘 조심해야 하였고 견제하는 세력들로부터 장관님 본인과 가족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백범 김구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때로는 크나큰 자랑이자 자부심의 원천이셨겠지만, 늘 어깨위에 무거운 짐을 버거진 숙명을 가지고 살아가셨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남한과 북한이 정부수립에 관한

문제로 평양을 왕래하시며 분단을 막으려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어난 남북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또 한번 깊은 상처와 역경을 이겨내셔야만 했습니다. 중국, 인도, 미국에서 힘든 여건과 혹독한 비행훈련을 거치며 얻은 비행기술을 바탕으로 남북전쟁의 최일선에서 활약하시고 여러 중요한 작전들을 성공시키며 지금의 막강한 공군이 된 것에 큰 기여를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난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땀 흘려 가시며 다시 일어서기위해 노력하셨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며 꾸준히 한발 한발 전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급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불렀습니다. 장관님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계시던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지키고다시 일으켜세우기 위해 분투한 선열분들이 계셨기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창설과 초기발전에 참여하며 한국전쟁에 참전하시고 공군 제 6대 참모총장을 역임하셨던 김신 장관님의 크나 큰 노력으로 현재의 막강한 공군력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군에 오래남아 조국의 영광을 방위하고 제 특기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 다시 공군으로 재입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특기와 분야에서 노력하고 저 혼자서는 공군에 발전에 기여하는게 힘들겠지만, 공군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팀워크를 발휘하여 모든 공군인들이 다같이 노력한다면 더욱 더 발전하고 강해지는 공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선배님들이 일궈내신 이 업적들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해야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슴 한켠에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를 억지로 끌려간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군대에 가면 보고 배우는 부분도 많고 여러 장점들이 많으니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영공을 방위하는 정예 공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배님들이 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갈고 닦으신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도 많았고, 저를 되돌아보게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공군부사관으로 임관하게 되어서 다시 공군인이 된다면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복무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다시 한번 김신 장관님과 독립운동가분들, 호국영령이 되신 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노력과 희생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독서감상문 제목
소 속	부사관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1137 / 후보생
이 름	홍성의

부사관 교육대대에 입소한 이후, 학과를 위해 받았던 여러 교보재들 사이 눈에 띄었던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님의 회고록 ‘조국의 하늘을 날다.’

한때, 공군조종사를 꿈꾸었던 나에게 공군조종사 출신의 장군이 쓴 회고록이라는 점과 백범 김구선생님의 아들이 쓴 책이라는 점이 이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 시켰고 또, 공군 부사관 246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을 공부하며 자세히 알게된 근현대사의 인물들과 그 이야기들이 그 시대속에 직접 살았던 당사자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어 책을 읽는내내 빠져 들어 몰입할 수 있었다.

책의 흐름은 김신장군님의 생애 흐름 순으로, 크게 어린시절·광복후와 6.25 전쟁 직후의 어지러운 시기,그리고 6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회고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운동가인 아버지 김구선생의 차남으로 태어난 김신장군은 어린시절부터 어머니를 여의고 연로하신 할머니님과 함께 한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일제의 감시와 추격을 피해 아버지를 따라 중국 곳곳을 옮겨 다니셨고 그 과정속에서 많은 독립운동 인사들의 분투를 목격하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외로이 걷는 막막한 심정으로 그 시절을 보내셨다고 한다. 그러던 와중에 평양으로 떠난 수학여행에서 미립 비행장의 일본항공기와 조종사를 보며 항공기 조종사의 꿈을 키웠고 이후 난징,우한,청사,광저우 등 중국 곳곳을 돌때마다 일본군의 비행기 몇 대에 수많은 목숨들이 달아나는 것을 보며 공군이 되어 일본을 폭격하리라는 평생의 꿈을 세우셨다. 그렇게 꿈을 쫓아 중국 공군으로 입대하여 인도 라호르에서 초등 비행훈련을 받던 중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가 혹독한 비행훈련을 마저 수료하고 나서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후 국군에 입대하게 되고

민족을 단합시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아버지 김구선생을 보좌

심사자

기록사항

하며 지내던 중 다시 한번 암살로 인해 아버지를 여의는 아픔을 겪게되며
설상가상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국군의 열악했던
환경속에서 공군조종사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분투하시게 된다. 종전이후엔 공군참모총장 재직과 한국 현대사의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모두 겪으셨고 전역이후에는 임시정부활동시기 장제스
타이완 총리와 있었던 인연으로 타이완 대사로서 여러 중요한 일들을
양국간 성사시켰으며 중국과의 수교과정에도 일부 참여 하시는 등
외교무대에서 여러 활약을 하신 이후 국토부장관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일생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다. 이러한 김신장군님의 일대기가 시기
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황묘사를 통해 서술된 책이 되겠다.

일생을 자신의 안위가 아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바치는 일, 어떤 결의와
마음가짐을 가지고서야 임할 수 있는 일인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다.

어찌보면 비현실적이고 무모해 보이기도 한 일들을 조국을 위한 신념하나
로 실행에 옮기셨던 선열들, 그러한 분들의 중심에 계셨던 백범김구선생,
그분의 아들로 태어나 겪었던 고생의 기억들을 통해 독립운동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함께 얼마나 큰 헌신을 했을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러한 신분과 상황속에서 조종사의 꿈을 키우고 이뤄
냈다는 것에 대한 존경심도 느낌과 동시에 그 꿈의 완전한 실현이 아닌,
부분적인 실현, 즉, 조종기술을 조국의 산하에서 동족과 싸우는데 써야만
했던 일로 인해 느끼셨을 허탈감과 씁쓸함 또한 공감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쉬운 감정도 느낄 수 있었는데, 광복이후 남과 북이 서로
이념에 따라 갈리는 과정속에서 민족의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일을 바라며
장기적으로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셨던 겨레의 큰 스승 김구선생님을 암살

했을것으로 추정되는 친일세력에 대해 적합한 처벌을 주고

심사자

기록사항

뿌리뽑아 역사의 본보기로 삼지 못했다는 것에서 그러했다. 김구선생께서 바라셨던 민족의 통일은 그렇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후광에 가려져 항상 비교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 속에서도 그 정신을 이어받고 일평생을 조국을 위해 일하셨던 김신 장군님께 크나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기 위해선 행해져야 할 과제와 조건들이 많다. 하지만 그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깊고 단단한 국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그 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강한 국방력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스스로 지킬 힘이 있어야 국력을 보존하고 그 국력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화합을 우리가 주도하여 이끌어 낼 수 있지 않을까? 몇 년전 독립군으로 활동하셨던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올 때 우리공군이 운송중인 모든 기종의 전투기가 장군님을 모신 수송기를 호위하는 작전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 영상에서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이라는 조종사의 교신을 듣고 나 조차도 크게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는데 하물며 우리의 선열들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감격하실까? 분명 대견해하고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력과 국방력을 자랑하고 그 가운데는 정예의 공군이 있다. 어찌본다면 김신장군님을 비롯한 초창기 대한민국 공군을 창설하신 선배님들께서 그러한 선열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민족통합의 초석을 다져 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후배로서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일구어 놓으신 것들을 잘 이어나가야겠다는 결심이 선다.

현재 나의 신분으로 이 책을 읽은 것이 나에겐 감회가 남다르다. 늦은 나이로 군 간부가 되기위해 재입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개인의 편안함과 금전적 풍요를

심사자

기록사항

쫓아가는 직업을 선택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몸으로 군복이라는 제복을 입고 좁게는 나의 주변인, 넓게는 나라를 위해서 내 능력과 전문성을 키우고 펼쳐가며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나이 28살 인생의 갈림길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했다. 결국 나의 꿈을 쫓는 길이자 보람과 가치가 있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했고 이렇게 부사관 교육대대에 입소해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나에게 이 책은 내 선택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주었다. 김신 장군님의 회고를 읽으며 국가의 몸으로 살아오시며 느낀 자부심과 보람을 열볼수 있었고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초급간부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요즘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하며, 나와같이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길을 처음가고자 마음 먹었을 때 진정 자기 자신이 추구했던 제일의 가치가 무엇이였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이책을 읽으며 그 가치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졌으면하는 마음이다. 이외에 모든 246기 동기 후보생분들도 임관전 반드시 이책을 필독해 보았으면 한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조국의 하늘을 날다
소		속	부산관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1115 / 후보생
이		름	김지민

부사관 후보생을 내 손으로 지원해 입영하기 전 많은 것을 알아보고 공부했지만 김신 장군님의 존재와 공군참모총장, 중화민국 대사, 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등 여러 가지 나라에 기여하신 것조차 이번에 알게 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님에게 이런 훌륭한 아들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전하신 부분에 대해 굉장히 존경스러웠고 본받고 싶었다.

위로 누이 3명이 계셨지만 어린 나이에 병으로 운명하셨고 김신 장군님은 1922년에 태어나 4살 터울인 형과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로 가족이 구성되었지만 태어난지 2년 만에 어머니를 사고로 보내드려야 하셨다.

태어날 때쯤 독립운동가들의 현실은 처참했다. 김구 선생님만큼은 임시정부에 뜻이 확고 하셨어서 김신 장군님도 아버지의 뜻을 받아 활약하실 수 있었던 것 같다. 어렵게 간 수학여행에서 펄럭이는 머플러와 커다란 안경을 쓴 모습을 보며 비행사가 되리라고 마음먹은 것을 보면 우리와 같이 열악없는 학생임을 느낄 수 있었다. 안신학교, 다중차오소학, 안후이중학을 다니셨는데 중국에서의 학교생활에서는 국내에서 배워간 것들로 충분했기에 소통을 하기 위해 중국어를 익히는 데에 집중하셨던 모습에서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왔을 때 소통은 어려웠지만 다른 부분은 남들보다 특출났던 기억이 있어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할머니, 아버지와 계속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중국 곳곳을 옮겨 다니시며 신분도 숨기고 다른 이름을 쓰시며 신분도 숨기고 다른 이름을 쓰시며 각종 독립 운동가 분들에게 처한 상황과 죽음, 활동들을 지켜보시면서 느끼셨을 감정들이 어떠셨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1939년에 할머니를, 광복 5달을 앞둔 1945년에 형을 피난중에 잃으신 김신 장군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1948년 공산당에 점령당해

다시 왕래할 수 없게 되어 위령비를 세우려고 했으나 거리가

심사자

기록사항

멀어 찾아가지 못하기에 임시정부 청사에 요청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아직까지도 실행은 안되고 있다. 임시정부 내무부 직원으로 등록되고 중앙대학 부속 고급중학을 졸업한 뒤 서남연학대학에 진학해 중앙대학에서 합격하지 못한 공군 군관학교에 입학하시게 되셨다. 비행 훈련이 아닌 기초 군사 훈련만 6개월을 받고 미 공군 기지인 라로호로 가서 초등 비행 훈련을 마치고 나서야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다. 이후 아버지와 남북연석회의, 북쪽의노동절행사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다 1948년 임학준 선생님의 둘째 딸 임윤연과 결혼을 하게 되셨다. 1948년 8월 23일 국군에 입대해 육군항공대 3중대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며느리와 손자를 끔찍이 생각하셨던 김구 선생님이 피할 수 있었던 암살을 당하게 되셨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 제사 하루 전날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 6.25 전쟁이 터지게 되었다. 전쟁 도중 최영희 장군님이 빼앗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차를 발견하게 되어 아버지의 차를 되찾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북한의 물자보급을 담당하던 승호리 철교를 미군이 폭파시키는 것에 실패하게 되고 우리나라 공군이 위협을 무릅쓰고 저공비행을 통해 직접 폭파에 성공하게 되어 공군의 위상을 높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조종사들이 죽어 나가고 작전에서 실패해 점점 사기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자 사기를 올리기 위해 조종을 직접 나가서 작전도 수행하시고 맡은 임무도 완수하셨지만 지휘하고 명령을 내려야 할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하셨기에 참모총장에게 대구 본부로 근무지 이동을 당하게 되셨다. 검은 고양이를 훔쳐라 라는 비밀임무도 맡게 되셨는데 도중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임무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일어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주 중화민국 대사로 부임하게 되시고 대사로 활동하시며 우호조약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체결하시고 성사시키셨으며 박정희 대통령

심사자
기록사항

님의 요청을 받아 국회의원에 출마 하셨지만 정치 경험이 부족하셔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 와중에 선거를 도와주던 아내분이 암 진단을 받아 돌아가시게 되어 패배의 쓴맛과 아내를 잃게되는 아픔까지 겪는 경험을 하게 되셨다. 아내를 떠나보낸 고통에 하늘에 봉 떠있는 기분으로 지내시다 이를 안 박정희 대통령님이 일이라도 바쁘게 시켜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시려 교통부 장관을 추천하시게 되고 교통부 장관으로서 많은 업적과 성과를 내시고 퇴임 후 국회의원, 독립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 백범기념관 관장 등 독립 유공자분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셨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공군에 이런 위대하신 분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너무 부끄럽고 우리 역사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님과 할머니 또 형까지 잃으시고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배우시려 했던 자세는 내가 군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자세라는 것을 느꼈다. 수학여행에서 펠릭스는 머플러와 안경 쓴 모습을 보며 꿈을 가지시는게 마치 우리들의 어린시절 처럼 해맑으신 모습이 상상이 되었다. 독립운동을 진행하시면서 봐오셨을 수많은 죽음들, 좌절, 패배 그 와중에 있었을 승리, 광복의 기쁨 작전에 성공 했을때의 쾌감 등 그때 겪으셨을 감정들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든다. 아버지를 여의시고 제사 전날에 전쟁이 터지는 것도 그렇지만 전쟁 와중에 아버지의 차를 찾아 다시 끌고 가시는 그 기분은 어떠셨을까? 그런 비참하고 좌절뿐인 상황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게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여러 가지 중요 직책을 맡으시며 각각의 업무를 막힘없이 배우시고 해결해 나가시며 결단을 내리시는 모습이 많이 부족한 나로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위해 필히 본받아야 하는 자세인 것 같

심사자

기록사항

다. 김신 장군님과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의 희생에 항상 감사하고 가슴에
깊게 새겨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기억을 되살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을 가지게 되는 내용이었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공군의 살아있는 역사 김신에 대하여
소		속	부산관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1214 / 후보생
이		름	김동희

안녕하십니까. 부서관 후보생 1중대 2소대 14번 김동희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의 느낀 점은 독립운동가의 후손 김신 장군님의 살아온 삶이 평탄하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어도 여러 고난을 극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는 내용에 대단함을 느꼈고 진정한 공군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의 중심내용과 인상 깊었던 내용, 느낀 점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제1부 [이산의 땅에서 자라는 나무]에서는 김신 장군님이 중국에서의 힘든 어린 시절과 난징에서 겪은 중일전쟁, 어머니와 같은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종사의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난징 대폭격을 직접 목격하고 일본에 폭격하기 위해, 복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흥미로웠고, 조종사의 꿈을 이룬 뒤 공군 참모총장이 되어 어린이들에게 비행기를 태워주는 행사에서 나중에 행사에 참석했던 어린이가 김신 장군님이 탑승한 비행기의 공군 출신 기장이 된 이야기를 통해 색다른 경험으로 공군인의 꿈을 키울 수 있게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2부 [창공에 띄운 민족의 꿈]에서는 조종사가 되기 위해 중국에 있는 공군관학교에 입학부터 훈련과정, 조종사가 되기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훈련 중 광복을 맞이했지만, 아버지의 반대와 미국의 군사 원조계획으로 귀국을 못한 내용에서 나라를 되찾은 기쁨을 조국에서 기쁨을 즐기지 못하고 훈련만 해야했던 김신 장군님의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조종사가 되어 이승만 대통령님을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타지 않고 폭

격기를 타고 갔다는 내용과 미국 차이나타운에서 군인들이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막 기스를 하는데 김신 장군님은 구경하다 전봇대에 박았다는 내용에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제3부 [전쟁의 비극,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에서는 육군 항공대에서 활동부터 5.16 군사 쿠데타까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3부에서는 V.T신관이라는 특수 신관이 달린 폭탄을 달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정비사가 안전핀의 역할을 하는 철사를 반대 방향으로 달아 놓아 생긴 비극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의 직종과 관련있는 내용이기에 더 관심있게, 나중에 공군 항공 정비 부사관 되어 정비를 할 때 이 내용을 명심하여 큰 책임감을 갖고 신중히 정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다고 이야기만 들었던 승호리 철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군은 100회 실패할 동안 우리 공군은 항공기의 비행 고도를 낮춰 폭탄을 투하해 3회만에 성공한 작전인데 승리를 위해 위험을 무릎쓰고 작전을 수행한 공군의 위대한 선배님들의 의지와 성공의 자부심으로 공군에 반해 하루 빨리 공군에 소속되어 공군 위엄에 한 몫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4부[중화민국 주재 대사의 사명]에서는 타이완 대사관으로 재직 중 이룬 업적과 당시 있었던 일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인 장제스의 부탁으로 한미회담에서 타이완 언급, 한국-타이완 우호조약 체결, U-2 정찰기 기밀 내용 입수, 타이완서 쌀 수입 등 많은 업적을 남기셨지만, 가장 멋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어느 지역에 한국 유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없

어 장제스의 아들 장징궈와 하와이 교민들에게 도움을 청해 한국 소학 건립을 추진하여 한국 유학생들의 교육열을 높이신 일과 유학생들을 중국 명절에 자신의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등 타국에서 고생하는 국민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에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5부 [다시 시대를 생각한다]에서는 국회의원의 도전과 한국-중국 수교, 교통부 장관으로 재직 중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3.1 운동 50주년 기념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김신 장군님의 주장으로 남산에 김구 동상이 세워졌지만, 백범기념관은 김영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도 거절당하시다, 김대중 대통령님에 의해 53년 만에 지어졌다는 내용에서 독립에 많은 힘을 쓴 한 독립운동가의 노력을 53년동안 기념할 수 없음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교통부 장관 때에는 김신 장군님께서 공자 취푸에 방문하셨을 때 공자는 중국의 위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위인인데 그의 고향은 잡초가 무성하고 제사도 다 틀리다고 한 지적에 중국 고위 간부, 여유국장이 공자의 묘소를 단장하고 성균관 대학교에 직접 가서 제사 절차와 방법까지 다 배워갔다는 내용을 읽고 장군님의 중국에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어판 백범일지를 출판하여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나라 사랑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책을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약 10일 동안 읽으면서 책 한 권을 통해 김신 장군님의 일생을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었고 잘못 알고 있던 역사를 당시

상황을 통해 실상은 이랬었구나 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조종사와 독립,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지만 공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공군 역사에 대한 유익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한번은 정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신 장군님께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L-4 항공기에 태극마크를 달고 한강 다리 밑을 비행하다 김정렬 장군님께 혼나셨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때의 심장은 뜨거워습니까?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조국의 하늘은 앞으로도 푸를 것이다.
소		속	부산관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2116 / 후보생
이		름	김민영

회고록? 자서전을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독후감? 독서를 한

심사자
기록사항

후 자신의 감상을 적어내는 것이다. 자라는 아니지만, 중학교 국어시간에 반강제로 썼던 '아몬드' 독후감을 제외하면 써본 적이 없다. 책 읽는 행위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미디어가 너무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그 탓이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기타 등. 사실 이번에 독후감이란 걸 쓰게 된 것 또한, 내가 책을 너무 사랑해서, 내 인생을 뒤흔들 정도로 영향을 줘서, 그래서 쓴 건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벤트가 있어서 쓴 거다. 오히려 좋다. 이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계속 책꽂이에 모셔놓았을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오랜만에 만화책이 아닌 '책'을 읽게 된다. 처음 책을 열기 전에는 꽤 두꺼워 보이는 두께에 위압감을 느꼈지만,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책의 표지에는 '백범의 아들, 김신'이라고 적혀 있었다. 백범? 내가 아는 그 백범? 한국에서 나고 자라, 의무교육을 받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백범 김구를 모를 수가 없겠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뿌리. 그에게 자식이 있다는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생각도 해본적이 없다. 오직 조국의 독립만을 바라보며 헌신한 임시정부의 뿌리이기에. 그 당시 한반도는 지금의 대한민국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못하고, 여가를 보장받기는커녕 일제에 의해 탄압당하며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 왔을 것이다. 남의 나라 군대를 위해 농사를 짓고, 땅을 내주어 철도를 건설하고, 많은 젊은이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했다. 이를 넘어, 강제로 전장에 나가 타국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았다. 우리나라의 군대는 강제로 해산당해야 했고, 한 나라의 국모가 처참하게 살해되기까지 이른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통한 일인가. 많은 사람들은 독립을 꿈꿨고, 김구 또한 그 많은 사람 중 한명이었다. 그의 강한 독립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그런 김구는

의 조국 대한민국,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을 아버지

심사자

기록사항

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오늘 날까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현실도 역시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1994년 7월 12일 베이징, 백범일지 출판기념식에서 김신 장군이 한 말이다. 오늘 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증명하고 실로 눈부신 번영을 이루어 냈다. 삼성, 엘지, sk 등 많은 기업이 세계로 우뚝 서게 되었고, 전투기, 전차, 자주포 등 많은 무기를, 우리의 기술로 만든 무기를 수출 및 계약하는데에 성공한다. 총 한자루도 못 만들고, 한국전쟁 당시 전차, 전투기 한 대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은 이제 없다. 이것만으로도 조국을 지켜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치 않는가?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70년이 넘어도 분단되어 있는 안타까운 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매년 막대한 분단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통일을 꿈꿔야 하는 이유이며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 안보위협 해결, 영토의 확장 등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또한, 매년 징집되는 젊은 청년들에 대한 병역의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자연스레 국익증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통일이 되었다 가정하더라도 강한 군대는 굳건히 유지해야만 한다. 한반도 주위에는 언제나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군인들은 강한군대를 유지하고 조국통일의 역군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몇 명이나 피를 흘렸을지, 절대 망각해서는 안된다. 내 이야기를 살짝 하자면 나는 병역의무를 이미 해결한 재입대자이다. 육군에서 전차정비 부사관을 하려고 지원서까지 넣었다가 심장이 공군에 가라고 속삭이는 바람에 바로 공군에 지원해 이 곳, 진주에서 기본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훈련은 꽤나 고되지만 후회는 없다. 내가 선택해서 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

기 까지, 얼마나 많은 공군선배들의 노력이 들어갔을지

심사자

기록사항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난 이곳, 공군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어느 한 위대한 공군인의 회고록을 읽을 수 있게 해준 공군에게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이 책의 제목인 '조국의 하늘을 날다'. 책에서도 나오지만 많은 뜻, 깊은 뜻이 담겨져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꼭, 직접 읽어봐야 할 것이다. 더 많은 공군 장병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해준 공군에게 감사하다. 두서없이 너무 길게 쓴 느낌이 없지않아 있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 내가 느꼈던 바, 책에 대한 감상 등 편하고 솔직하게 털어 낼 수 있어 만족스럽다. 책을 주제로 글을 써내려 간다는게 그렇게 따분한 것도 아니란걸 알게 되었다. 또, 이 책안에서 공군의 4대 핵심가치를 찾아낼 수도 있었다. 별 이유 없이 선정한게 아니란걸,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로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 번, 김신 장군님과 조국을 위해 젊음과 청춘조차도 버리고 뭐든 하셨던 선열분들, 그리고 우리 공군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어설픈 감상문을 마친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김신 장군의 삶으로 나를 되돌아 보다.
소 속	부산관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1104 / 후보생
이 름	우채원

부사관 후보생으로 들어와서 '조국의 하늘을 날다'라는 책을

심사자

기록사항

알게 되었고, 일기 시작했다. 김신 장군의 스펙타클한 삶을 책으로 읽는 것이 재밌었고, 읽은 것을 토대로 독후감도 써보려고 한다. 훈련단 교본 중 부사관의 역할/책무에 가장 적합한, 떠오르는 인물은 김신 장군이라고 생각이 든다. 전투지휘자, 전투기술자, 기능분야 전문가, 부대전통 계승자 이 4가지 책무를 지니고 실천하며 먼저 보여준 인물이다. 이 당시 많은 선열들의 숭고한 노력 속의 처절함 그리고 외로움이 방금 일어난 일인 마냥 머리속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헌신이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줌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가족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헌신,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같았다.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가 헌신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면서 희생하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을 배웠다. 김신 장군이 살아온 시대는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으로 감시를 당하던 시대였다. 책 속의 글 중 '태어나자마자 엄마라는 말보다 아버지라는 말보다 할머니라는 말을 가장 먼저 배워야 했던 나의 운명. 가족간에 누려야 하는 따스한 감정마저 좀처럼 누리거나 드러낼 기회가 없는 운명. 그것은 너무도 가혹했다.'라는 말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하게 갈 수 없고 숨어 살아야 살 수 있는 시대였다. 글로 읽기만 해도 숨막히는 세상 속에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다.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도 김신 장군은 6세에 수학여행을 떠나 일본 육군항공대 미림 비행장을 견학하며 처음으로 비행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 다짐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변하지 않으셨다.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김구 선생, 김신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기적인 행동이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죽음이 눈

앞에 보이면 앞장서지 못 할 것 같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많

은 선열들은 죽음보다 일본에 무시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사는 것을 더 힘들어 하셔던 분들이시다. 이 분들을 보면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고 변한다면 기꺼이 받치겠다는 굳은 의를 볼 수 있다. 김신 장군은 침략한 적을 물리쳐 승리를 거두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며 나는 그러한 본분에 늘 충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씀하셨고, 임기 최후의 5분까지 내 힘을 다 사용하는 것이 김신 장군의 일이라고 하셨다. 임기 이후의 일을 걱정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많은 힘을 썼고, 후배들의 양성에 애썼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아직 걱정도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다. 이 책을 읽고 드라마틱하게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고 충실히 임무 수행하며 맞서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먼저 두려워 숨기보다는 당당하게 나서고 국민을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렇게 나를 불러주는 나라가 있다는 것, 나를 위해 조금이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자체가 나에게서 큰 행복이자 보람이었다 라는 문단에 공감과 감사함을 또 한 번 느꼈다. 당연하게만 느꼈던 모든 삶들이 김구 선생, 김신 장군 그리고 많은 선열들의 노고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여유로운 삶. 당연히 여기고 있는 삶 모두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독후감을 마무리 한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잠깐이지만 하늘을 날았다.	
소		속	부사관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1333 / 후보생
이		름	정지민	

범의 아들 김신 여기서 말하는 백범은 우리가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다. 처음에는 김구 선생님이 쓰신 책도 아니고 처음 들어보는 분의 책이라 관심이 크게 가지는 않았는데 부산관교육대대에서 고른 책이 곧 공군에서 고른 책이라고 생각하여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을 쓰신 김신께서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고자 마음을 먹으면서도 조심스러우셨다고 하셨다. 그 이유가 한 사람의 기억과 이야기 역사 사이에는 늘 틈새가 있기 마련이라고 양해를 먼저 구하셨다. 맞다 말에는 누군가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있기 마련이고 왜곡되는 부분도 있기에 이 책을 쓰시면서 조심스러우셨을거라고 생각한다. 김신께서는 아버지 백범 선생님의 뜻을 따라 조국의 하늘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셨다고 하셨다. 이 책을 읽기 전 병영생활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읽었는데 그 책자에서도 국군의 이념의 정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표현하거나 모티브가 된게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공군 창설에 이바지한 김신, 견해가 뛰어났던 그의 아버지 김구 공군창설에 기여한 7인 등 이분들이다. 이 회고록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말이 있다면 “독립운동이란 작은 힘으로 큰 것을 때리는 것 아닌가”라는 말이었다. 공감이 갔었던 이유는 막강한 일본을 상대로 끝까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당시 약했던 우리의 상황을 잘 묘사했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셨기에 무식하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셨을 것이다 맞다 무조건 맞는 말이라고 해서 옳은 행동은 아니다. 자신의 소신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행동은 자신이 나아가는 길이 올바른 길로 가는게 맞다고 믿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회고록에서 내가 알고 모두가 아는 여러 유명인들이 나와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 중 윤봉길 의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회고록에는 자세히

심사자

기록사항

적혀있지는 않지만 윤봉길의사에 대해 알아보다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바로 윤봉길의사가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던진 것은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물통폭탄을 던진 것이었다. 도시락폭탄은 자결용 물통폭탄이 의결용이었고 도시락폭탄을 미처 터트리지 못해 자결에 실패했고 이것이 사진에 찍히면서 사람들이 도시락 폭탄을 던지려 했다고 착각하게 된 자세한 내막을 알게되었다. 이 책은 김신의 회고록이기에 그의 주변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곤 했는데 그 중 가장 애뜻하고 그리움이 느껴지는 인물은 할머니, 곽낙원 할머니였다. 호랑이 할머니 학교도 안 다니셨고 글도 잘 모르셨지만 배운 사람들보다 말을 더 조리있게 하시고 독립운동에 의지가 굳센 분이셨다고 한다. 이런 분이셨기에 광복을 다섯달 남기고 피난 중에 할머니와 형의 죽음이 밝은 눈이 부신 아침이지만 속은 어두컴컴한 밤이었지 않을까 가족이었던 할머니와 형을 떠나보내고 조종사 훈련에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미국에 가려던 차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영화에서 중앙청 앞에서 동포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온 것을 보고 가슴이 터질 듯 기뻐했다고 하셨는데 현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와닿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전개로 조국에 돌아가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고 아버지 또한 조국을 위해 교육 훈련에 정진하시라는 말씀에 섭섭하시면서도 아버지의 해안에 감사했다고 한다. 그렇게 훈련을 마친 뒤 13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뒤 아버지와의 재회 우리가 자유는 얻었지만 동족들과의 분쟁을 새로운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축하를 하기보다 끝까지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셨다. 그와 그의 혈족 그들의 동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칭하고 있지는 않을까 다시금 생각을 하게되는

순간이었다. 미군에게 받은 비행기의 미국마크를 태극마크로

심사자

기록사항

바꾸었을 때 감회가 남달랐다. 우리의 집단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있고 그 기쁨에 한강 밑으로 주행하면 안된다는 걸 알지만 자신의 기쁨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기에 태극 마크를 자기의 성장스토리가 담긴 것이
생생하게 느껴져 덩달아 두근거렸다. 김구께서는 윤봉길의사 추도식에 애
국가 4절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부분을 한번 더 부르고자하신
이유가 나라사랑은 기쁠 때, 편할 때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 아플때도 해
야한다. 나라사랑은 변하면 안된다는 정신이 굳게 강조하셨다. 이 말은 자
유를 얻은 우리지만 분쟁 또한 같이 얻게 된 우리를 향하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이 책을 읽고 느낀 바로는 우리는 독립운동가들과
그의 혈족동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그렇기에 나는 나
라를 사랑하고 역사를 바로알며 군사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해
병들을 이끌고 상명하복에 따라 선임들을 도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힘인 공군의 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군의 역사를 빛내주시고
기록해주신 김신님께 감사를 표한다.